

# 주말까지 또 폭설 예보...광주시, 제설 총력 대응

### 민·관 장비·인력 총가동...비탈길·상습결빙 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대중교통 증편, 등교·출근시간 조정...시민 '눈 치우기' 참여 호소

광주시가 지난 주말에 이어 또 한차례 폭설이 예보됨에 따라 제설대책 마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2일부터 주말인 24일까지 사흘간 광주·전남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7-18일 내린 눈이 아직 쌓여있

는 상황에서 폭설이 내릴 경우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지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조기 가동하고, 자체 보유 장비는 물론 민간장비와 인력까지 총동원해 527개 노선 685km 구간의 제설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경사진 도로와 상습결빙 구간에 대해서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제를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도로 결빙 구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폭설 비상단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발송, 대중교통 증편, 등교 시간 조정, 공직자 눈 치우기 및 출근시간 조정 등 원활한 출근길 대책도 마련 중이다. 광주시는 다만 폭설시 행정력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눈길 차량 사고와 함께 보도·골목길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내 집 앞 골목길은 시민이'라는 '눈 치우기 캠페인' 마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폭설이 내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눈길 사고 26건 중 15건(57.6%)은 집 앞이나 인도 등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조사됐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내년 3월까지 시민들에게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도 제공한다. 제설자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앞 진출입로 등 많은 양의 제설자재가 필요할 경우 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과(062-613-6943)로 요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특히 내 집 앞이나 가게 앞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자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은 시민'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대체수원 확보·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력”

### 강기정 시장, 상수도사업본부 방문...가뭄 대책 추진사항 등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가뭄 극복을 위한 비상 대체수원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 대책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가뭄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정수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강 시장은 “최근 많은 눈이 내렸지만 상수원 저수율 상승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속 20% 물 절약 노력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만큼 힘을 모아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누수로

버려지는 물의 양이 심각하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20일 현재 동북동 저수율은 27.08%, 주암댐은 29.54%이다.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으로 12월 셋째 주 물 사용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만8천t(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큰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눈이 내렸지만, 해갈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동 의료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조선대병원과 광주시 관계자들이 카심 대학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했다.

## 조선대병원·광주시 중동 의료관광시장 개척

### 일주일간 사우디 방문...광주 의료관광 등 홍보

조선대병원이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의료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최근 일주일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조선대병원은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중동 의사연수 협력 의료기관’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중동 의료 진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조선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중동클리닉을 개소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방 등 중동국가의 환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진료시스템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사우디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조선대병원 김경중 병원장·최지운 대외협력실장 등 4명과 광주시 직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광주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가졌다.

방문단은 사우디 보건국 및 대한민국 대사관, 카심 대학교·대학병원 등 다양한 현지 의료기관을 찾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의사연수, 상호 협력 및 교류 등에 대한 업무협약은 추후 논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대병원 최지운 대외협력실장은 현지의 교수 및 의사를 대상으로 “기능적 코성형술 및 비뿔브형착의 분류 가이드”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우디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경중 병원장은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의료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 의료관광과 조선대병원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 명품 지하수 50곳 선정

### 보건환경연구원, 책자 발간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미네랄과 기능성 성분을 함유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명품 지하수 50곳을 선정, ‘전라남도 지정 명품지하수 50선’ 책자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했다. 명품지하수 선정은 전남지역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지표(J-INDEX)를 적용하고, 먹는물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미네랄 및 기능성 성분 함유량 등의 점수를 반영해 이뤄졌다. 2016년부터 매년 10개 지점씩 발굴해 2020년까지 50선을 선정했다. 하지만 도민 접근이 어려운 개인 소유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어, 올해 공익성 높은 곳 12곳을 신규 발굴해 새로운 명품 지하수 50선을 확정했다. 책자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올 상반기 온실가스 1만t 감축

### 탄소포인트제로 3만9583가구 4억8000만원 상당 인센티브

전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약 1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가 151만 그루가 연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표준 탄소 흡수량 가이드’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입자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최근 2년 대비 온실가스 5% 이상을 감축한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도 9980t의 탄소를 줄였다. 전남도는 가입자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를 3% 이상 5% 미만 감축한 가구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별도

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온실가스를 5% 이상 감축한 3만3781가구에 대해 4억56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해당 5802가구에 24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총 3만9583가구에 4억8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생활실현을 위해 더 많은 도민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